

코로나19로 경험하게 된,

# 온라인 개학

## 사상 첫 '온라인 개학'



코로나19로 등교가 어려워지면서  
쌍방 화상강의, EBS 강의를 이용한  
온라인 개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 ‘온라인 개학’에 대한 높은 관심도



(단위: 건)





‘온라인 개학’ 관련 인터넷 언급량

온라인 개학에 대한 관심은  
본격적인 논의 이후 **뜨겁게** 인터넷을 달구었습니다.

# 온라인 개학 확정... 노트 대신 노트북??



## 연도별 주요 품목별 언급량

구분	품목	2019	2020	전년 대비 증가율(%)	
 전자 기기	홈CCTV	669	2,689	301.9	 증가
	헤드셋	27,737	102,560	269.8	
	태블릿	38,570	56,540	46.6	
	모니터	222,990	246,563	10.6	
	마이크	181,345	183,206	1.0	
	데스크탑	23,649	28,825	21.9	
	노트북	159,446	224,883	41.0	
 문구류	필통	13,745	6,375	-53.6	 감소
	필기구	6,121	2,990	-51.2	
	연필	36,167	24,195	-33.1	
	공책	13,563	9,053	-33.3	

조사기간) 2020.03.15 - 2020.0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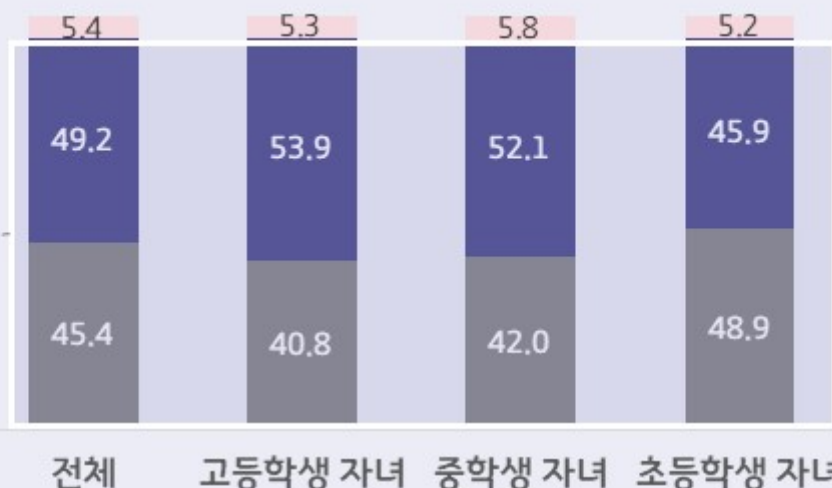
온라인 개학이 확정된 후, **전자기기**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였고,  
**문구류**에 대한 관심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 ‘온라인 개학’ 너무 걱정이에요!!



자녀의 온라인 개학 우려 정도는?

- 매우걱정된다
- 조금걱정된다
- 걱정되지않는다



CHECK

온라인 개학이 걱정되는 이유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자녀의 태도

온라인 수업으로 교과내용(진도)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선생님의 학생들 수업태도 관리가 잘 이뤄질지

출처) 잡코리아, 온라인 개학 준비 현황



“ 인터넷으로 하는 강의를 초등학교 1학년이 집중해서 보고 배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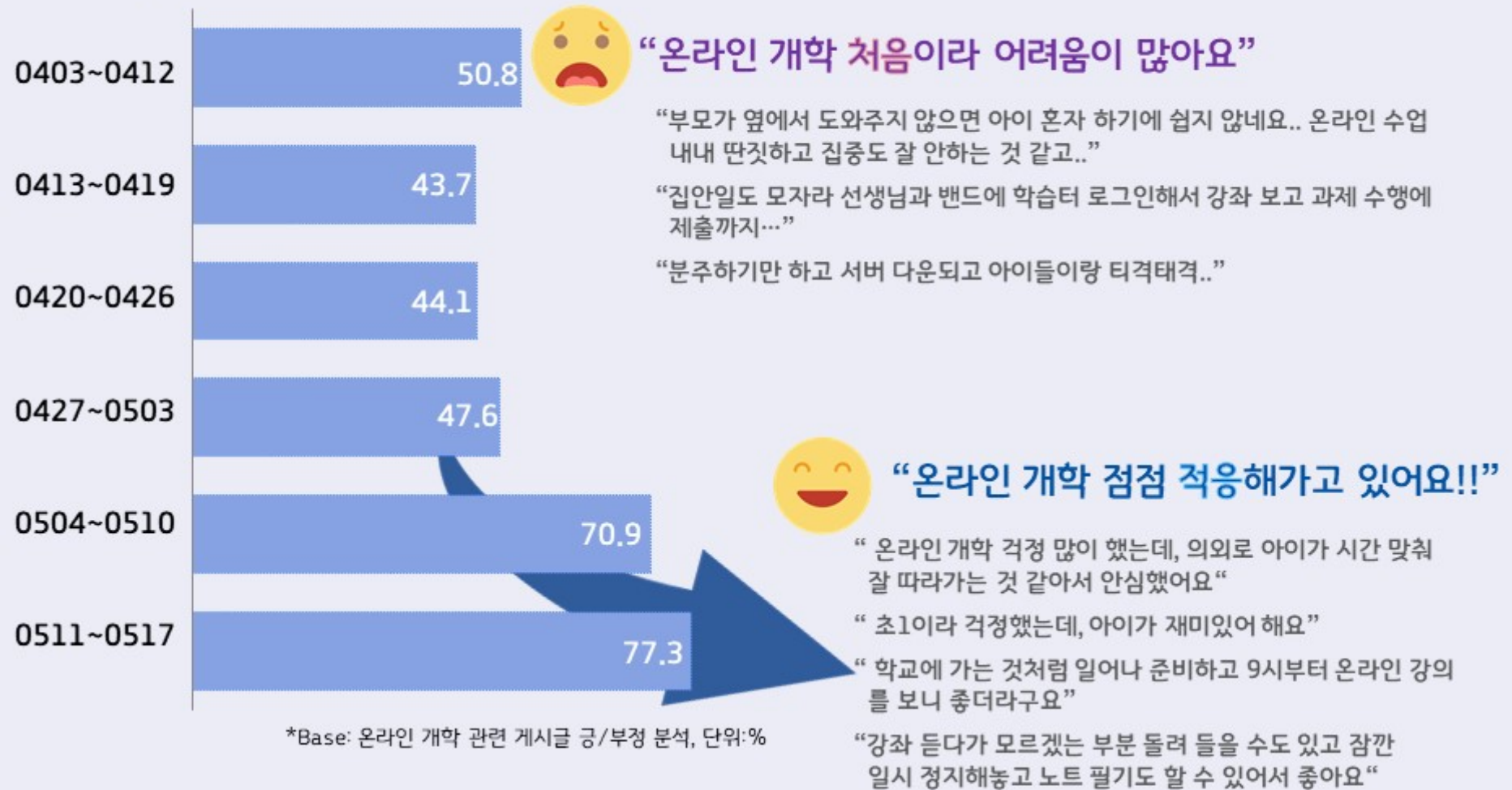
“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예요. 계속 옆에서 지키고 앉아 있을 수도 없구요”

이와 함께, 공교육 역사상 처음 시도되는 온라인 개학으로  
 실시 전 학부모들 사이에서 여러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났습니다.

# 온라인 개학 시작, 우려가 현실로?



## 온라인 개학 관련 긍정 평가 추이



그러나, 온라인 개학 초반 야기됐던 **혼란**은 시일이 지날수록 **적응되어 편하다**는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 ‘대체’ 아닌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을까?



장기화될 온라인 수업에 대응하는 자세



## 가르치는 교사로서 이끄는 교사로 (컨텐츠의 질 개선)

“저희 학교 온라인시범학교고, 지금도 온라인 수업 중인데, 이걸 안하는게 나을 정도로 수업 질 심각해요 ㅋㅋㅋㅋ 선생님들은 다 다큐멘터리 틀어주거나 딴 얘기하는데 유익한 건 1도 없고 ...”

“장기적으로는 선생님마다의 교육컨텐츠를 개발하셔야겠습니다. 교실 안에서 학생들하고만 교류했을 때는 객관적인 교원 평가가 한계가 있었지만 온라인 강의를 일반화 되면, 평가하는 관계자분들 학부모들이 모두 선생님을 더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자기주도 학습 능력 강화 (공부 패턴 잡기)

“현역 고3학생인데 온클로 인해서 일상 패턴이 깨지긴 했어도 할 사람은 패턴다 시잡고 하는 거 같아요”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완전 생활패턴이 망가졌습니다”

“온라인 개학하고 나니까 더 공부 안하네요..차라리 등교 개학했으면 공부시간 더 많았을 거 같은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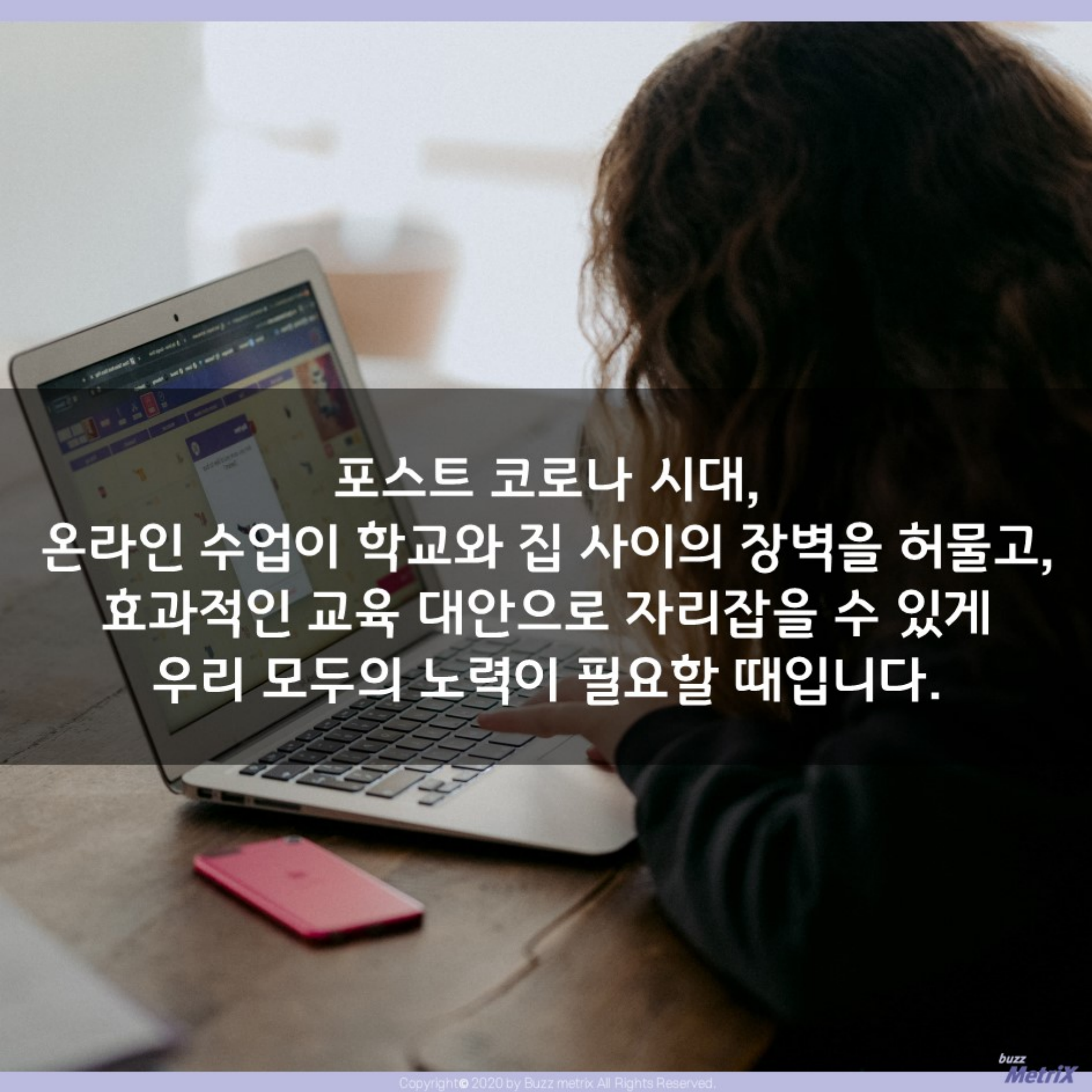


## 교육에 대한 사고 전환 (디지털+아날로그 방식 조화)

“큰아이는 충분히 컴퓨터노출을 1년 이상 하였습니다. 그러다 온라인 개학을 하니 수업에 집중합니다. 아마도 계속 막았으면 수업 중 딴짓을 했을 것 같네요. 현재를 사는 아이들에게 더이상 폰과 컴퓨터를 막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중딩 초딩 온라인수업을 지켜보면서 아이들은 이미 포노 사피엔스족이었고 훨씬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것같았어요 이제부터 부모가 마음가짐. 가다듬고 같이 시대에 발 맞추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온라인 수업’은 교육 분야의 뉴 노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 수업이 학교와 집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효과적인 교육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 ***Making the Invisible Visible***